



보도 자료

동남아시아: 중반기 성장 지속 - 2012-2016 에 5.6% , OECD 발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2011 년 11 월 29 일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및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6 개국의 성장율은 2011 에 5.0%로 예상되며, 2012 - 2016 에는 2010 년보다 2% 낮은 5.6%로 전망됩니다. 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자연 재해로 이 지역의 성장 전망에 적신호가 켜졌지만 둔화된 OECD 경제에 비해서는 동남아시아 전반적으로 2016 년까지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OECD 동남아시아 경제 전망에서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 지역의 대외적인 수요는 일정한 정도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중반기에 ASEAN 경제는 내수 성장 동력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장기적인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체 전략으로써 '녹색 성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실제 GDP 성장(연간 백분율 변화)*

	2010	2011	2016	평균 2003-07	평균 2012-16
인도네시아	6.1	6.3	6.9	5.5	6.6
말레이시아	7.2	4.6	5.6	6.0	5.3
필리핀	7.3	4.5	5.1	5.7	4.9
싱가포르	14.5	5.6	4.8	7.5	4.6
태국	7.8	2.5	4.9	5.6	4.5
베트남	6.8	5.9	6.7	8.1	6.3
6 개국 평균	7.6	5.0	5.9	6.1	5.6
중국	10.4	9.3			
인도	8.8	7.7			
이머징 아시아 평균	9.5	8.2			

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이 지역의 새로운 과제에 따라 이제 아시아의 성장의 질이 바뀌고 있으며, 더 균형 잡히고 포괄적이며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OECD 개발 센터 이사인 Mario Pezzini 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동남아시아에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 성장이 필요합니다. 어두움은 곧 밝은 새벽을 의미합니다. 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성장 재창출의 좋은 기회입니다."

최근에 이러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대외적인 수요에 의존했던 내수 동력이 동남아시아 경제 발전에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중산층의 증가와 사회 정책의 개혁을 통해 촉진되는 대규모의 인프라 투자와 개인 소비의 증가는 이 지역의 성장을 위한 두 가지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체계적 정책을 이행하는 일은 글로벌 거시 경제의 불확실성과 대외적인 충격의 영향에 대응하여,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성장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많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세계 경제의 변화하는 성장 역학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발 전략을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5개년 경제개발 계획에 여러 가지 새로운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OECD 동남아시아 경제 전망*은 국가별 주해에서 체계적인 국가 정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발전 전략을 명확히 하려면 인적 자원 개발, 보건, 인프라 개발, SME 개발, 세제, 노동 시장 개혁 및 농업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개혁 조치를 채택해야 합니다.

녹색 성장은 천연 자원을 현명하게 사용하고 새로운 성장의 원천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ASEAN 국가에 실용적인 개발 모델을 제공합니다. 비록 ASEAN의 CO₂ 배출은 OECD 국가에 비해 적은 규모를 유지하고 있지만 1990년부터 2010년까지 OECD의 0.7%에 비해 매년 5.5%까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예상 인구 7억의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블록인 ASEAN 국가는 전 세계 CO₂ 배출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최근의 이니셔티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서 녹색 성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빈곤한 ASEAN 국가에 있어서는 단기적인 경제적 요구와 장기적인 환경 문제를 균형 있게 추진하는 일이 큰 과제입니다. 환경세의 적절한 활용, 녹색 기술의 이용, 에너지 보존을 위한 공공-민간 협력의 강화 그리고 글로벌 탄소 시장의 참여 등이 모두 결정적인 도구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다음 연락처에 문의하십시오.

해외: Elodie Masson, elodie.masson@oecd.org, 전화: +33 1 45 24 82 96

아시아: PAC Tokyo, Noriko Mimura, noriko.mimura@oecd.org, 전화: + 81 3 55 32 00 26

편집자를 위한 주해

동남아시아 경제 전망

동남아시아 경제 전망(SAEO)은 OECD 개발 센터가 발행하는 새로운 지역 경제 전망 보고서이며 아시아 경제 성장, 개발 및 지역 통합에 관한 OECD의 참고 자료입니다. 이 보고서는 10 개의 ASEAN 국가(브루나이, 다루살람,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에 초점을 맞추며, 이와 관련이 있는 중국 및 인도의 경제 문제를 다루어 이 지역의 경제 개발을 충분히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oecd.org/dev/asiapacific에 문의하십시오.

OECD 개발 센터

개발 센터(www.oecd.org/dev)에서는 OECD 및 협력 국가들이 개발 및 빈곤 퇴치에 대한 글로벌 과제의 혁신적인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OECD 내의 독특한 기관이자 국제 커뮤니티이며, 회원국 및 개발 도상국의 정부, 기업 및 시민 사회 단체가 공통적인 이해의 문제를 비공식적으로 논의하는 곳입니다.

* 출처: OECD 동남아시아 경제 전망 2011/12(발간 예정), 중국 및 인도에 대한 OECD 경제 전망 2011/2, 90 호.